

'3토'와 평안

제 370기 2019년 9월 10일

2019년 9월 6일까지 해외 대기원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중공의 당, 단, 대 조직 탈퇴를 성명한 인원:

3억 4,106만 명

미국 공화당 전국위원회, 중공의 강제 장기적출 징의안 통과

[명혜망] 2019년 8월 2일, 미국 공화당 전국위원회가 징의안 하나를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이들은 파룬궁 수련생 등 양심수에 대한 중공의 강제 장기적출을 질책했다.

공화당 전국위원회 위원이며, 전 캘리포니아주 공화당 의장인 손 스틸은 이 징의안의 발기인이다. 스틸은 영문 NTD TV 기자 훌리 켈름의 특집 방송에 출연해 전 세계가 중공의 인체 장기 강제적 출 행위를 알기를 바란다면 말했다. “우리는 지속되고 있는 이 인권문제를 세계가 알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역사상 가장 사악한 행위 중 하나입니다.” 그는 최근 영국 독립인민법정이 공표한 조사 결과가 자신으로 하여금 이번 징의안을 발기하게 했다고 밝혔다. “(강제 장기적출) 이것은 용서할 수 없는 범죄행위이며, 인류 역사상 가장 저급한 (가장 어두운) 행위로 기록될 것입니다.”

2019년 6월 17일, 중공의 강제 장기적출을 조사한 국제 독립인민법정이 런던에서 판결을 선고했다. 법정은 판결문을 통해 중공의 양심수 장기 생체 적출 행위가 다년간 존재했고, 여전히 존재하며, 파룬궁 수련생이 장기의 가장 주요한 출처라고 밝혔다.

이하는 징의안의 내용이다.

20년 동안 대부분 시간에 중공 정권이 감금된 죄수의 몸에서 줄곧 비열하게 장기를 강제적출해 이식에 사용했으며, 이들이 ‘양심수’, 즉 티베트 불교도, 기독교도와 파룬궁 수련생으로 믿어짐을 감안하여,

사람들이 중국행 ‘이식여행’에 몰려들고, 그중 긴급한 이식을 요

하는 사람이 중국에서 수만 달러를 들여 장기 이식을 하고 있으며, 중공이 매년 진행하는 6만에서 9만 건의 이식수술 수량이 중국 내 장기 기증 수량을 멀리 초과했음을 감안하여,

중공의 병원이 2주 안에 주요 장기의 이식을 할 수 있어 장기 ‘기증’에 사악한 요소가 존재함을 감안하여,

비교하건대, 미국의 고도로 발달한 장기 기증 시스템이 장기 수요자를 대기 명단에 올리고, 장기 이식을 기다리는 사람이 수백 일 후에야 이식을 받을 수 있으며, 정확한 날짜를 예측할 수 없음을 감안하여,

2000년 이후 이미 수십만 명이 살해되어 장기를 강제로 적출당한 것으로 믿어짐을 감안하여,

2019년 6월, 중공 정권이 수십 년 간 양심수의 몸에서 강제로 장기를 적출했다고 선포한 독립인민법정의 조사 결과를 감안하여,

캐나다 국회와 유럽의회, 그리고 미국 하원 외교사무위원회가 징의안을 통해 양심수를 대상으로 한 강제 장기적출을 비난한 것을 감안하여,

나아가 유엔 특별보고원이 이식수술에 이용된 장기의 출처에 대해 책임질 것을 중공에 요구하고, 세계 의학회와 미국 이식학회와 기타 이식학회가 중공 의료기관에 대한 제재 실시를 호소한 것을 감안하여,

이에 따라 공화당 전국위원회(RNC)는 중공의 강제 장기적출 행위를 강력하게 비난한다.

또한 공화당 전국위원회는 중공의 강제 장기적출 행위를 중대한 인권침해 행위로 인정한다.

북캘리포니아 오클랜드 중추절 축제에서 화인이 ‘3토’하다

[명혜망] 미국 캘리포니아주 오클랜드시의 연례행사인 중추절 거리 축제가 2019년 8월 24일과 25일, 시내의 변화가인 차이나타운에서 열렸다. 예년과 마찬가지로 파룬궁(파룬따파) 수련생은 24일, 거리에 진열대를 놓고 민중을 향해 파룬궁의 진상을 알리고, 화인들에게 ‘3토’하여 평안을 보전할 것을 권했다.

오클랜드 차이나타운은 차량의 왕래가 빈번하고 몹시 번화하다. 파룬궁 수련생은 진열대에 각종 파룬궁 진상 자료를 준비했고, 진열대에서 진상을 깨달은 사람의 행렬이 그치지 않았다. 수많은 화인이 주동적으로 진상을 확인했고, 이날 140여 명이 ‘3토’를 했다.

마이클 신이라는 이름의 한 서양인은 파룬따파와 중공의 파룬궁 박해 진상을 소개하는 그림을 유심히 본 후에 분개하며 말했다. “중공 정권은 너무나 사악합니다. 사람들이 마땅히 그에 반대해야 합니다.” 화인인 탕(唐) 씨도 진상을 본 후에 비슷한 생각을 말했다.

오클랜드는 샌프란시스코 동쪽에 있으며, 큰 다리를 사이에 두고 있다. 파룬궁 수련생의 기억에 의하면 박해가 막 시작된 몇 년 동안 수많은 화인이 파룬궁에 대한 중공의 모함 선전으로 인해 파룬궁을 오해했다. 애초에 그들이 파룬궁 진열대를 지날 때는 많은 사람이 수군거렸고, 태도도 좋지 않았다.

파룬궁 수련생이 수년간 계속해서 진상을 알리자 갈수록 많은 사람이 파룬궁은 사람에게 마음을 닦아 선을 향하게 하는 불법(佛



8월 24일, 파룬궁 수련생들이 북캘리포니아주 오클랜드 차이나타운 중추절 거리 축제에서 진상을 알렸다. 다가와서 진상을 깨닫는 사람이 그치지 않고 이어졌다.

法)임을 깨달았고, 파룬궁을 박해하는 중공의 사악함을 알게 되었다.

현재 일부 사람은 파룬궁 수련생과 친구가 되었고, 진열대를 지날 때 파룬궁 수련생에게 열정적으로 인사를 한다. 더욱 많은 사람이 더는 회피하지 않고, 기쁘게 진상을 알아본다. 적지 않은 사람은 중공이 곧 나쁜 것이라고 말한다.

막다른 곳에서 파룬궁의 복음을 듣고 운명을 바꾸다

[명혜망] 나는 올해 72세로, 원래 촌의 부녀 주임이었다. 집에서는 석탄 판매소를 하여 수백만의 자산을 모았다. 단란한 가정을 누리던 중에 내 몸에 위기를 맞았다. 나는 7, 8가지의 목숨이 걸린 질병, 특히 말기 위암으로 인해 갖은 고통을 당했고, 살기 위해 할 수 없이 두 차례 큰 수술을 받았다.

비록 보잘 것 없는 목숨은 지켜냈지만, 후속 치료도 나를 죽기만 못하게 했고, 날마다 먹는 약이 밥보다 많았다. 살고 싶은 욕망으로 중약, 양약에 줄을 세운 것처럼 번호를 매겨 한 줌씩 먹었는데, 먹는 약이 갈수록 많아져 몸에 생긴 부작용도 갈수록 커졌다. 지난 날 분발했던 나는 일격도 견디지 못하는 병자가 되어 온갖 고통을 받았다.

이런 고통에 시달린 6, 7년 동안, 같은 병에 걸려 나와 큰 차이가 없던 동료 환자들이 눈앞에서 한 사람씩 떠나갔다. 그 기간에 나는 채소를 사던 장바구니와 집의 문틈을 통해 여러 차례 파룬따파 진상 자료를 받았고, 읽은 후에는 다른 사람에게 주어 읽게 했다.

나는 존재 가치를 드러내고, 지난 몇 년 간 나의 병 치료에 쓴 가족들의 돈을 보충하기 위해 한 사람과 손잡고 사기를 쳐서 번 돈을 반씩 나누기로 했다. 나는 겨우 한 번 만에 체포됐다. 가족들은 나를 집으로 데려오기 위해 많은 돈을 날렸다. 그로부터 2년 후,

발자국과 짐승의 도장

[명혜망] 다른 집에 손님으로 갔다가 떠날 때면 늘 주인이 물을 것이다. “떨어진 것 이 있는지 보세요.” 어렸을 때 나는 이런 상황에서 장난으로 말했다. “떨어뜨렸어요.” 주인이 급하게 물었다. “뭘?” 내가 말했다. “발자국요.” 그래서 모두가 웃었다.

사람이 어디를 가든 발자국을 남기지만, 아무도 그것을 아까워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범죄자에게는 범죄의 증거가 될 것이다. 내가 처음으로 ‘짐승의 도장’이라는 말을 들었을 때, 즉시 ‘발자국’이 연상되었다. 〈성경〉을 읽은 사람에게는 ‘짐승의 도장’이 조금도 낯설지 않을 것이다. 그런데 ‘짐승의 도장’이 가리키는 것은 무엇일까? 지난 몇 년 동안 나를 잡고 예수를 믿으라고 한 사람들은 모두 “모른다”고 했다. 그런데 진정하게 이해하는 사람은 안다. ‘짐승의 도장’은 사람들이 중공의 당, 단, 대 조직에 가입하면서 지원하여 중공에 목숨을 바치는 그 순간에 마귀에 의해 이마에 찍힌 기호다. (<공산당 선언>에 쓰여 있다. “하나의 유령, 공산주의의 유령이 유령에서 빙동거리고 있다.” 독일어 원문의 “Gespenst”에는 유령과 마귀라는 두 가지 뜻이 있다.) 이것은 사람의 생

나는 다시 그 일을 벌였고, 결국 발각을 당했다. 가족들이 갖은 애를 썼지만, 나를 데려갈 수 없었고 나는 1년형 판결을 받았다.

간수소에 수감된 기간에 나는 목숨을 살릴 중·양약을 제때에 먹지 못해 여러 차례 혼절, 쇼크, 인사불성증을 일으켜 응급치료를 받았다. 같은 감방 사람들은 모두 내가 갑자기 고꾸라질까봐 감히 나에게 접근하지 못했고, 의무실에 알려 구급약을 요청할 때 의사들은 나에게 욕을 퍼부었다.

도저히 어쩔 방법이 없고, 모든 기대가 물거품이 됐을 때 나의 운명에 전환점이 나타났다. 같은 감방의 한 파룬따파 제자가 나에게 지난 몇 년 동안 파룬따파가 박해를 받은 진상을 알려주면서 ‘3퇴’하여 평안을 보전하고, “파룬따파 하오(法輪大法好-파룬따파는 좋습니다)”를 명심하면 큰 복을 받는다는 등의 복음을 전해주었다.

나는 기꺼이 탈당하여 평안을 보전하는 정확한 선택을 했고, 마음속으로 틈만 나면 묵묵히 “파룬따파 하오”를 외웠다. 천천히 발병하는 횟수가 감소하고 간격도 늘어났으며 인생의 가치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가지면서 미래의 희망이 보였다.

어느 날 한밤중에 갑자기 심장에 한바탕 심한 통증이 발생해 나는 쇼크 상태에 빠졌다. 같은 감방 사람이 긴급히 도움을 요청했

을 때 나는 갑자기 마음 깊은 곳에서 나온 한 마디를 외쳤다. ‘파룬궁 사부님, 빨리 오셔서 제 목숨을 구해 주세요!’ 마음속으로 말을 마쳤다고 생각한 순간, 즉시 기분이 상쾌해졌고, 한 줄기 따뜻한 흐름이 마음 깊은 곳을 가르면서 호흡이 신속하게 정상으로 돌아왔다. 나는 정말 신의 은택을 느꼈다.

그때 이후로 나는 파룬따파에 대한 믿음에 추호의 의심도 없이 경건하게 “파룬따파 하오, 찐싼런 하오(真善忍好-진선인은 좋습니다)”를 묵념했다.

형기를 채우고 집으로 돌아온 후, 나는 목숨을 구해주신 파룬따파 사부님의 은혜와 대법제자의 부탁을 잊지 않고 가족들에게 나의 신기한 경험을 이야기했다. 그리고 가족들을 설득해 나처럼 중공 사교의 당, 단, 대 조직을 탈퇴하여 평안을 보전하고, 대법 사부님의 자비로운 구도를 얻게 했다. 나는 정말 다행스럽게도 그 감옥에 헛되이 가지 않았다.

리 대사님 감사합니다! 파룬따파 제자께 감사드립니다!

‘톈안먼 분신자살’은 조작극



● 파룬궁 책 속에는 살생과 자살이 모두 유죄라고 명시되어 있다. 진정한 수련인은 살생이나 자살, 분신자살을 절대 할 수 없다.

● 2001년 8월 14일, 유엔 회의에서 국제교육개발기구는 ‘톈안먼 분신자살’ 사건과 관련하여 중공 당국의 ‘국가 테러주의 행위’를 강력하게 비난했다. 또 영상 분석 결과 정부가 사건 일체를 연출했음이 드러났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 휘발유가 연소할 때 화염의 온도는 섭씨 500도가 넘을 것인데, 이런 고온 속에서 CCTV 화면 속 왕진둥은 꼼짝 없이 앉아 있을 수 있었고 머리카락도 그을리지 않았다. 경찰은 소방 담요를 들고 옆에서 기다리다가 왕진둥이 카메라를 향해 구호를 모두 외친 후에야 소방 담요를 그에게 덮었다. 이것이 연극이 아니면 무엇이겠는가?